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인근 사찰들 환영

무등산 인근 100여개 사찰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긍정적
사찰과 자연화경 어우러지는
생태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찰이 몰려있는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무등산 주변의 사찰들 변화가 요구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6월 무등산국립공원 경계를 총 82.30㎢로 확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 안은 광주 동구가 21.07㎢(25.60%), 북구 28.85㎢(35.05%), 전남 담양 14.76㎢(17.93%), 화순 17.62㎢(21.41%)의 면적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구로는 공원자연본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외에도 증심사 · 약사암 · 규봉암 · 원효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와 증심사 및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8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사찰과 불교관련시설들은 새로운 변화 모색이 요구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무등산에는 전통사찰인 증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약사사, 규봉암과 문빈정사을 비롯해 무등산 경계 안 인근에 100여개의 사찰과 암자가 위치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같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며, 관리비용도 국가예산으로 지출된다. 그중 전통사찰은 지난 4월에 공시된 관련법령에 의거 문화재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 로 지정 돼, 기존 건축물의 허가가 단순화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무등산지역은 기존 원효사지구에 위치한 관리사무소가 증심사지구로 이전이 되며, 화순과 담양지역에도 각각 개설이 된다. 또한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들은 국립공원 승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등산 대표 사찰인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무등산에는 많은 문화재 사찰들이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무등산의 격이 높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있다"며 "공원이란 생태적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이 공존해야 된다. 무등산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사찰 문화 등이 한께 보존 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북한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기암괴석인 서석대와 입석대 주의로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서 한 시간 이내 위치하면서도 해발 1187m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명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예정돼, 무등산 내 위치한 사찰들의 변화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무등산 중심사 전경

광주전남 태고종 화합 발전 도모

6월 28일 태고종 주지총회 개최

광주전남지역 태고종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지총회가 개최됐다.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호산)는 지난 6월 28일 광주조선컨벤션에서 '불기 2556년 주지총회 및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명 스님(원로의원), 성천 스님(원로의원), 호산 스님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태고종 회원사찰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교구의 소속 사찰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교구 발전과 호남불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금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소통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소통이 원만히 되었을 때 비로소 화합이 된다"며 "교구 회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무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주지총회에서는 ▷사찰분담금 납입 ▷시민선방 개원 ▷마애여래좌상 보물 승격 발의 ▷3/4분기 불교의식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이 나눠졌다. 한편 행사는 주지총회에 이어 원광대학교 김귀성 교수의 '가족 포교' 에 대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위사 아미타삼존불 복원 불사 회향

6월 30일 개금불사 회향 · 점안법회 봉행

남도답사 일번지인 강진 무위사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복원을 거쳐 점안됐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화)는 지난 3년여 복원과정을 통해 지난 6월 30일 극락보전에서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위사 주지 법화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복원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성보문화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 초기 불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며 보물 제1312호로 지정돼 있다.

복원과정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영산문화재연구소에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 대한 보존상태 등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소조 아미타불 좌측어깨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것이 발견됐다.

그 후 관련 전문가 연구원 10명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증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립박물관에 보관된 유리원판 사진을 토대로 1년이 넘게 제작기법 및 흙의 종류와 성분까지 밝혀내며 원래 형태로 복원했다.

과학적 조사가 실시되면서 삼존불상의 본존인 아미타불상이 나무로 만든 목조가 아닌 흙으로 빚어서 만든 소조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존불은 연하좌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불상이고, 연하좌 기법은 흙으로 연꽃잎을 하나씩 손으로 빚어 조성됐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정명이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에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바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무위사는 3년여 복원과정을 통해 6월 30일 극락보전에서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 발견

석탑 해체 보수공사 중 발견…보존처리 위해 작업 중지

전북 익산 미륵산 심곡사(주지 화평) 7층석탑(전북 유형문화재 192호)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익산시는 7월 3일 심곡사 칠층 석탑이 북쪽으로 기울게 된 원인 규명과 지반 안정성 검토를 통한 석탑 해체 · 보수정비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진행되던 중 사리장엄구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탑이 기울어진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3D스캔 촬영 통한 수평수직 변위조사, 굴절법 탄성파탐사와 전기비저항탐사 등 지구물리탐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석탑 해체 후 지반 보강 방안이 결정돼, 석탑 해체작업 중 6월 23일 2층 기단 중대석 노출과정에서 방형의 사리공(15.5×15×10.5㎝)이 발견됐다.

사리공 안에는 백자소호 1점과 금동 및 청동여래입상이 각각 1구씩 봉안되어 있었다. 또한 뚜껑 없이 안치되던 백자소호 안에서는 사리 1과와 청동원경 1점, 향목 및 직물 편 등이 확인됐다.

이후 기단 하부 지대석 노출과정에서 지대석 상면 중앙에 금동불감(佛龕)으로 추정되는 안치된 사리공(24cm×23cm×18cm(깊이)이 발견됐으나 불감 수습에 있어 별도의 보존처리 등이 요구되어 보호조치 후 작업을 중지했다.

6월 28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김용한) 및 매장문화재, 불교미술사 분야 전문가 협조를 받아 지대석 내 사리공 안의 불상과 불감에 대한 수습이 완료됐다. 수습된 사리장엄구 일체는 현재 익산 왕궁리유 적전시관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 안에 임시 보관중이며 빠른 시일 내 보존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도 진행중이며 보존처리과정이 끝나면 사리장엄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방형태의 불감 크기는 23.5×18㎝이며 평평한 뚜껑 상면에는 화형받침이 있는 두개의 고리가 부착돼 있으며 뚜껑 가장자리는 말각 상태이고 정면쪽 끝단에는 연판문으로 장식돼 있다.

정면에 문을 설치해 여닫도록 제작됐으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불감 안 벽면에는 불상 등이 부조되어 있으며 수습된 파편들로 보아 정면 문 쪽에도 문양이 부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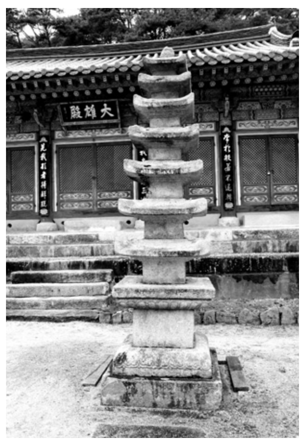
불감 안에는 여래 및 보살상 등 7구 정도가 봉안돼 있으나 위치는 흐트러진 상태이며 현재 내부에 흙이 충진 돼 있는 상태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감의 뚜껑은 부식이 진행되어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불감 정면 역시 훼손이 심해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불감에 대한 정확한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보존처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륵산 서북 편 기슭에 위치한 심곡사는 통일신라 때 무염대사가 수도처를 찾던 중 미륵산 깊은 골짜기에 창건했다하여 심곡사라 불리게 됐다. 또한 현재 사찰은 100여년 전에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다고 전한다.

심곡사 칠층석탑의 해체보수공사는 지반 보강공사 및 탑 부재에 대한 보존처리가 끝나면 조립에 들어가 오는 8월 중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심곡사 칠층석탑 해체 보수공사 전 모습(왼쪽)과 해체 · 보수 공사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쀼 출가의식 지원
신쀼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쀼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